



김민석 총리,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겨울철 쪽방주민의 안전 점검

- (따듯한 연말연시#5 창신동 쪽방촌) 함께함으로 모두가 따듯하고 안전한 연말
- 현장 관계자 격려 후,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(금) 오후, 창신동 쪽방상담소(서울 종로구 소재)를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, 쪽방촌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가정을 찾았다.

* (참석) 김나나 창신동쪽방상담소장,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, 김미경 서울시 자활지원과장 등

- 김 총리는 지난 7월 대전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, 쪽방촌 주민들이 여름철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.
 -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‘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’를 위한 다섯 번째 행보로, 쪽방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돋고 있는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,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직접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김 총리는 먼저 이번 달 개소한 창신동 온기창고 4호점을 찾아, 쪽방상담소장으로부터 온기창고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
- 온기창고는 쪽방주민들이 배정받은 적립금 내에서 후원으로 마련된 생필품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형 상점이다.

- 이후, 김 총리는 창신동 쪽방상담소로 이동해 공유주방, 목욕실, 너나들이 카페방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, 지방정부 및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 - 김 총리는 “바리스타 수업과 사진동아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쪽방촌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과 문화생활을 폭넓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”며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.
 - 이어 “정부가 겨울철 쪽방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지만,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”며, “현장 관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 - 또한 쪽방상담소 명칭 변경 등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, “법 개정 시 시설 관계자와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 달라”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.
 - 이후 인근 쪽방으로 이동해,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, 식사, 난방 등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다.
 - 김 총리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해주시기를 바란다며, 정부도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.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| 책임자 | 과장 | 양지연 (044-200-2287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수경 (044-200-2299) |
| | | 담당자 | 청년인턴 | 김겨리 (044-200-2310) |

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

- (빅데이터·AI 활용) 위기 정보(47종)를 분석하여 위기가구 약 30만 명 발굴·점검*('25.11.~'26.3.), AI 활용 초기상담으로 신속한 지원 제공
 - * 단전·단수 등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·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 겨울철 중점 발굴(4만명)
- (인적 안전망 활용) 명예사회복지공무원(26.7만 명), 좋은이웃들 봉사자(8.1만 명),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사회 중심 위기가구 발굴

②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

- (노인·장애인) 한파·대설특보 시 생활지원사(3.7만 명)가 취약노인 안부 확인, 댁내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장비(27.8만 가구)으로 신속 대처 지원
- (노숙인·쪽방주민) 폭설·한파 대비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 제공, 난방용품(핫팩, 침낭 등)·식사 제공 및 현장지원 강화('25.11.~'26.3.)
- (아동·청소년) 결식우려 아동 적극 발굴 및 급식 지원, 돌봄이 필요한 청·장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등의 돌봄 지원 확대*
 - * (일상돌봄) 215개 → 220개 이상 시군구, (긴급돌봄) 137개 → 142개 이상 시군구

③ 한파 대비 난방·건강 지원

- (난방비 지원) 에너지바우처 대상자* 확대(다자녀 기초수급자 포함) 및 대신신청제 도입**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난방비 지원***
 - *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
 - **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 검증 및 동의 수취 후, 당사자 대신 '도시가스 요금 지원 신청('25.7.~)
 - *** (경로당) 月 40만 원('25.11.~'26.3.) / (사회복지시설) 月 30~100만 원('26.1.~'26.2.)
- (건강관리) 한랭질환 발생현황 감시·공개('25.12.~'26.2., 500여개 응급실), 방문건강관리 통해 건강관리 교육·점검('25.11.~'26.2., 262개 보건소)

□ 추진 기간 : '25. 11. 1. ~ '26. 3. 31.(중점 추진 기간은 12~2월(3개월))

□ 주요 내용

① 촘촘한 위기대응체계 구축

- 유관기관 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및 지자체 대책* 수립·시행

*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의 중점 검증 항목 8개 과제, 36개 항목 포함

② 위기 노숙인 조기발견 및 집중 보호 대상 발굴

- (거리노숙인) 주·야간 순찰 확대, 기동력 확보를 위한 전용 차량 지원

- (쪽방촌) 고령자, 장애인, 환자 등 집중보호대상 발굴 및 지원

③ 동절기 위기 대응을 위한 복지자원 확보

- 응급잠자리, 생필품 등 사전확보 및 지원, 긴급 식량 지원대책 마련

- 동절기 보호 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

④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안전 점검 및 보수 지원

- 시설 및 쪽방촌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개·보수 지원

※ '26년 정부안 3,452백만원

⑤ 긴급 신고 및 위기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

- 응급잠자리, 무료급식 등 위기 지원 서비스 및 응급 신고번호 안내

⑥ 독감 예방접종 독려 및 위생 관리

-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 독려 및 노숙인시설 내 위생 관리